

전주시 첫마중길에 문화 향기 솔솔~

전주역 850m 문화광장

한옥마을 있는 관광명소로

한복패션쇼·플리마켓 등

청년 참여 행사 다채

전주시가 전주역 일대 첫마중길을 한옥 마을을 있는 대표 관광명소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한복패션쇼를 비롯, 플리마켓, 뮤지컬 갈라쇼,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끊임없이 펼쳐지는 젊음과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나간다는 복안이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역 인근 첫마중길에서 시와 문화예술진흥 민간단체인 청춘맞장구, 청년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마중길 한복판' 행사를 열었다. 한복패션쇼와 확산을 위한 것으로, 행사에서는 한복패션쇼와 한복모델 선발 대회가 열렸고 관람객들을 위해 한복체험부스,



전주역 인근 첫마중길에서 열린 플리마켓.

한복포토존 등이 마련됐다.

청년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응원한다는 전주청년상상놀이터 '청년 가운데 자리'도 같은 공간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첫마중길

을 자동차 대신, 사람으로 가득한 광장·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첫마중길은 전주역에서 명주골 사거리까지 백제대로 약 850m 구간을 말한다. 전주역에서 티케팅을 하는 승객만 1일 8000명에 달하는 등 서울역 다음으로 많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과 함께 젊음이들이 찾는 거리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주시 판단이다.

전주시는 이같은 점 등으로 '지방 없는 공연장-토요마 나들이'(토요일 토요일은 마중길 나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아문화의집 생활문화 전시·체험팀, 공연동아리팀이 매주 동네축제를 연다. 거리 곳곳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킹 구간도 25곳을 설치했다.

또 매월 셋째주 토요일, 첫마중길 문화 활성화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집, 플리마켓을 10월 14일까지 운영하고 명주골 어울림 한마당 공연 외 전주만의 독특한 창작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 갈라쇼도 공연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채우고 편의시설을 확충,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사람과 문화, 생태, 일자리가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복분자+풍천장어' 고창군 신메뉴 눈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35종 시식품평회 개최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하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11일 고창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푸드테라피 개발 메뉴 중간보고회와 시식품평회'를 개최했다.

시식품평회에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청정 고창군의 명품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35종의 개발 메뉴가 선보였다.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고창 복분자'와 지양강정의 왕 '풍천장어'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고급 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져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품이다.

이날 개발된 음식은 고창의 특색 있는 푸드 테라피 대표 먹거리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지역 음식점의 새 메뉴로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고창 복분자·풍천장어

연구소는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기반으로 식품산업 및 음식문화 체험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 사업'을 통해 외식업체 메뉴 개발, 제품개발, 여행상품 개발 및 푸드테라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복분자와 풍천장어를 활용한 음식들이 고창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전북 농촌관광, 정보검색·예약 한번에

'팜투어' 홈페이지 운영

전북도가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구축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비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북 '팜투어'(jibt.co.kr)에 접속하면 마을의 숙소·체험·음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적합한 상품과 날짜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웹과 연계해 체험마을 운영자와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예약 현황이 통보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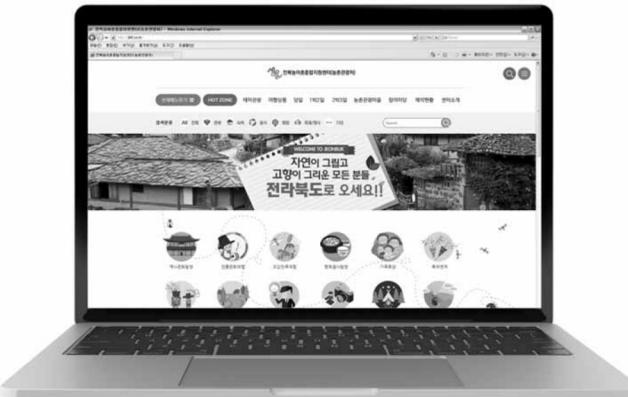
도는 4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식당을 비롯해 농촌관광 기반 관리 상태,

리터 및 사무 전담인력 보유 여부, 2가지 이상 체험행사 운영, 판매 가능한 특산물 유무 등을 따져 우선 33개 마을을 선정했다.

마을은 산들강·웅포·성당포구·수은·용머리(이상 익산시), 꽃두레·송죽·태산덕비(정읍시), 노봉촌·달오름·관동리덕동·상신(남원시), 내촌아리랑·벽골제·사방외갓집·황토(김제시), 안덕·오복·창포(완주군) 등이다.

또 황금(진안군), 후촌갈대숲(부안군), 땃양지(장수군), 강선달(고창군), 고주장·황토열매(이상 순창군), 꽃심지둔덕기·박사골·치즈·학정(임실군), 무풍송지·물숲명천·솔다박·진원반디·호룡불(무주군) 등도 포함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북 '팜투어'(jibt.co.kr)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강진군 '백운옥판차' 복원 나서

우리나라 최초 시판 차

강진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판 차(茶)인 '백운옥판차' 복원에 나섰다.

백운옥판차는 이한영 선생이 일본산 차가 범람하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유통했던 차다.

'백운옥판차'에서 탄 찾았으므로 만든 차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한영 선생의 고손녀 이현정씨가 국내 한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되찾아

와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씨는 강진군 사업비 지원으로 성전면 월남마을 일원 4628㎡에 차나무를 심었다.

강진군은 우리 차의 정체성을 지켜낸 차가 범람하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유통했던 차다.

군은 2011년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이한영 선생 생가를 복원해 관광명소로 꾸미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순창군, 오미자 음료 '하루채움수' 개발

기술이전 등 산업화 추진

지역 농가 소득 증대 기대

순창군이 지역 농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건강음료 '하루채움수'를 개발하고 기술이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하루채움수의 경우 오미자 등 향당도 효능이 있는 농산물을 사용, 당함량을 대폭 낮추고 갈증

해소, 기력회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연구소는 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에 나설 방침이며 동남아 수출을 위한 선호도 조사 등도 진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창의 농산물을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들을 개발하고 유통에도 노력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기자 jyg@kwangju.co.kr

29일 전주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차 대신, 사람들이 도로를 따라 걸으며 문화 향기를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가 오는 29일 전주시 객사 앞 충경로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객사 앞 충경로 사거리~다가교 사거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사람과 생태, 문화, 예술로 채우는 '제3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29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경로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받

영, 매일 둘째 주 토요일에서 마지막 주 토요일로 시간을 옮겨 운영키로 했다. 행사 시간도 오후 1~6시에서 오후 5~9시로 변경했다.

전주시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중 무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 한여름 밤의 공연, 물놀이 마당, 생활문화 체험마당, 시민장터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매일 저녁 남원 광한루에 달이 뜬다

지름 2.5m 인공달 설치

남원시가 광한루원 인근 승월대에 인공 달(사진)을 설치,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공 달은 지름 2.5m의 둥근 원 모양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사용했다.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불을 밝힌다.

인공 달이 설치된 승월대는 선녀들이 광한루원에서 노닐다가 아름다운 달빛을 보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은 달과 관련



된 지명만 200개가 넘는 달의 도시"라며 "남원의 이런 이미지를 널리 알리면서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즐길 거리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서·전원주택지

- 담양 무정면 오레리 1495㎡ 창평에서 15분 5100만원
-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2896㎡ 전양중을 2억2천
- 급매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6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원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원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 352㎡ 주택168㎡ 5억2천
- 원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4천
- 원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원파면내편 양동 상업지역 367㎡ 주상복합 적합 4억8천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 요양병원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여건 좋음 7억
- 독립성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원산동 보라아파트부근 1층 65㎡ 식당·사무실용 6천만원
- 충창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상가건물

- 남평아파트 2천세대 중심지 대지 885㎡ 총당 200평씩 공사중 16억5천
- 원산동 4차선과 2차선점 땅 129㎡ 철근조 2층상가주택 2억4천
- 충창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 좋음 9억4천
- 원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원산동 농성초교내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남구 송하동 산 22556㎡ 감정 2억5천선 음형 3천 매도 1억천
- 담보용 고흥군 삼입지 254㎡ 공시가 3억5200 은행 2억4천 매도 2천
- 유동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감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이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감정 24억선 매도 12억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감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8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광양, ㅅㅅ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7억 8천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